10월의 마지막 밤 문화향기에 취해볼까

10월 마지막 주말과 휴일에는 세상 근심 잠시 놓아 두고, 풍성한 문화행사에 흠뻑 취해보자. 사진은 오는 30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공연을 펼치는 크로스오버 앙상블 '허브'의 모습.

'10월의 마지막 밤을 문화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을 달래주는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흥겨운 무료 음악회가 열리고, 함평잠월미술관 등 시골 미술관도 늦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풍성한 전시회도 펼쳐진다.

재즈 클래식 넘나드는 음악으로… 무용으로… 미술로

광주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함평잠원미술관 등서

▲가을 하늘 수놓는 선율=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30일 오후 7시 전시관 앞 부지 1만8천128㎡에 이르는 넓은 잔디 정원에서 '크로스오버 야외음악회'를 마련한다. 클래식과 재즈, 펑키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앙상블 '허브'와 테너 양동훈, 첼리스트 오승석, 가수 박문옥이 출연해 매혹적인 선율로 가을밤의 정취를 선사한다.

또 음악회 관람객들은 이날 밤 9시까지 이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독일에서 온 편지'(10월9일~11월8일)전을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369-3515.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30~31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앞 테마광장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30일 오전 11시에는 '레이날도 아크로바틱' 팀이 우스꽝스러운 코믹아크로바틱을 선보이고, '마루크루'팀이 신나는 비보이 공연을 곁들인다.

또 31일 오후 3시30분에는 '야단법석'팀의 신명나는 타악 공연과 퓨전재즈 그룹 '딜리셔스'의 재즈 연주, '대한가수협회'의 통기타 공연, '서영무용단'의 한국무용공연 등이 펼쳐진다. 문의 062-608-4224.

광주지하철역에서 자원봉사하는 예술가들도 가을빛 향연을 펼친다. 3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지하철이 전하는 시민초청 가을밤 향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그동안 지하철예술무대에서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로 시민들에게 이름을 알린 12개 단체 130여명의 공연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또 '한국사이버문학인협회'의 시낭송, '빛고을 색소폰동호회'의 색소폰연주 등이 곁들여진다. 문의 062-604-8032.

▲ 시골 미술관에서 만끽하는 행복=단풍이 절정에 이른 전남 지역 유명산 인근의 시골 미술관에서도 풍성한 전시회가 관람객을 맞는다.

팔영산 인근의 고흥도화원미술관은 오는 11월20일까지 광양조형연구회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가효자, 김선영, 김신재, 김애숙, 김영양, 김혜정, 박병권, 박일정, 변옥란, 서재철씨 등이 참여해 현대 회화의 진수를 선보인다. 문의 061-832-1333.

가을빛이 눈부신 섬진강변에 자리잡은 곡성 옥과미술관은 오는 12월15일까지 황지영, 장명근씨의 사전전을 마련한다. '비움-사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황씨는 건물에 담긴 인간의 흔적을 추적하고, 장씨는 투명한 유리문을 포착한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1-363-7278.

함평잠월미술관은 11월14일까지 단아하게 피어난 연꽃 사진을 모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는 박주오, 오맹택, 김병훈, 박정숙, 김승재, 윤효숙씨 등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를 위해 이들은 전남 지역을 돌며 한 폭의 동양화처럼 고운 자태를 드러낸 연꽃을 카메라 앵글에 담았다. 061-322-6710.

영암출신 작가들의 모임인 구정회(회장 김인화)는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국립공원 월출산 일원에서 다양한 월출산 그림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전북, 광주, 전남 등 전국 유명 화가 400여 명이 참석해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생님들이 꾸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 무대

〈곽대훈〉

〈장준수〉

광주교원윈드오케스트라 내달 2일 콘서트

광주교원윈드오케스트라(단장 곽대훈) 제8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2일 오후 7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공연으로 꾸며 의미가 있다.

쥬페의 '경기병 서곡'으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주제곡, '록콘롤 멜로디', '디즈니 멜로디' '나팔수의 휴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또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송정중 교사)씨와 이희영·배미희·서미옥·유지나·문지환씨로 구성된 목관 5중주단 'T.O.P'가 찬조출연, 뮤지컬 '캣츠' 삽입곡인 '메모리'와 '파이브 댄스'를 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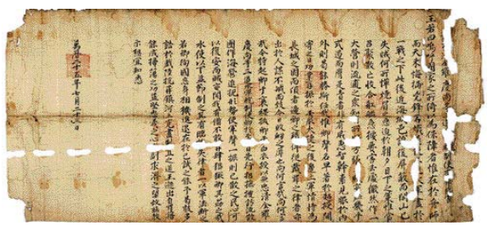
지휘는 장준수(광주 동성여중 교사)씨가 맡는다.

지난 2005년 광주의 초·중·고 교사들로 모임을 꾸린 광주교원윈드오케스트라는 6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까지 정기연주회와 함께 매년 광주시 교원예술제에 참가, 다양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문의 017-603-17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관직박탈 내 탓" 선조, 이순신에 '사과 편지'

여수서 내달11일 '기복수직교서' 등 공개



"그대(이순신) 관직을 박탈한 것은 어질지 못한 내 탓이며, 믿을 수 있는 것은 수군뿐인데 (칠천량) 패전 이후 눈썹이 타는 듯한 위급에 처했으니 그대가 군대의 위풍을 새로 한번 떨치게 하라."

오는 11월11일~15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는 '2009 문화유산 스토리텔링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선조가 이순신에게 내린 '기복수직교서'(起復授職敎書·사진)의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복수직교서는 선조가 1597년 칠천량 패전 이후 백의종군 중이던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하며 내린 교서(敎書)이다. 그동안 이순신 종가가 보관했던 이 교서는 지난 4월 경매 위기에 처해 있다가 현충사관리사무소에 기탁 된 뒤 이번에 첫 공개 된다.

기복수직교서는 낡아 이번 행사에는 사진으로만 공개되는데, 이순신의 관직을 박탈하고 어머니의 상중이었던 이순신을 다시 전장으로 보내야 했던 선조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겼다.

선조는 교서를 통해 "위엄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있어 평소에 안팎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이가 아니면 어찌 능히 이 책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랴"며 이순신을 통제사로 재임명하는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선조가 이순신에게 군량에 쓸 둔전을 잘 개간하라고 당부하는 둔전검칙유지(屯田檢飭諭旨)와 이순신의 어머니가 네 아들에게 집안의 재산을 나눠주는 일종의 분재기(分財記)인 초계변씨별급문기(草溪卞氏別給文記) 등 충무공 관련 미공개 자료들이 함께 공개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상록 피아노 독주회

11월 1일 광주 드맹아트홀

이상록 피아노독주회가 11월 1일 오후 7시30분 광주 드맹아트홀에서 열린다. 이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op. 14, No.2', 포레의 '즉흥곡 op.34 No 3.',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등을 들려준다. 조선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한 이씨는 러시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했으며 광신대·전남대 등을 거쳐 현재 조선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러시아 네이가우스 서거 40주년 기념 음악회 초청 연주 등에 참여했으며 지금까지 7차례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문의 062-651-411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필가 김행남 두번째 작품집 '돌아갈 하늘도 없는데' 출간

3년 전 말기암 판정을 받고 투병중인 수필가 김행남(68)씨가 최근 자신의 두번째 작품집 '돌아갈 하늘도 없는데'를 출간했다. 첫 수필집 이후 8년만에 출간된 이번 작품집은 그가 투병 중에 집필한 작품을 엮은것으로 더욱 값지다. 특히 표제작 '돌아갈 하늘도 없는데'에서는 시한부 생명이 갖는 생명에 대한 애착과 미련, 그리고 진솔한 슬픔의 정서를 담담한 문체로 풀어냈다.

김씨는 광주 출신으로 1999년 '전남문학' 수필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국제 펜클럽회원 온누리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필집 '山 같은 그리움 江물이되어'와 시집 '돌계단을 오르며'를 냈다. 〈시와사람·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